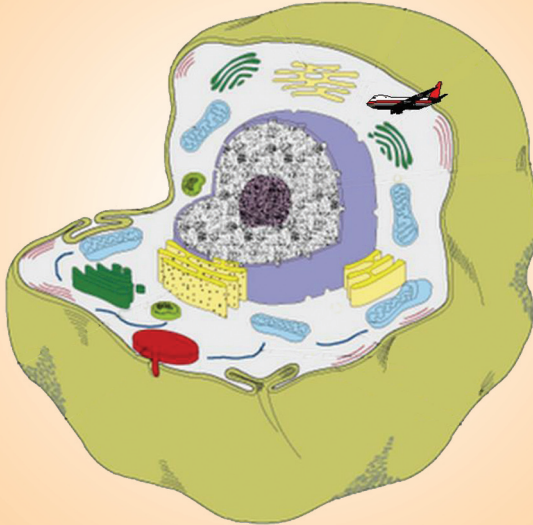


CREATION TRUTH



비행기와 세포의 복잡함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대답이 나올 수가 있다. 계신다(유신론), 안 계신다(무신론), 알 수 없다(불가지론)이다. 여기서 첫째로 유신론이 주장하는 하나님은 피조물과 완전히 분리된, 즉 우주 밖에 존재하는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로 무신론은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론이다. 서양의 무신론은 유물론적인 경향이 있는 자연주의인가하면 동양의 무신론은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범신주의다. 서양의 자연주의 사상이 바탕이 되어 19세기에 생명의 근원에 관한 이론으로 등장한 것이 진화론이다. 현대 과학주의적인 자연주의자들의 결핍된 영성은 결국 허무감을 초래한다.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이들이 마땅히 찾아야 할 성경의 하나님을 찾는 대신 동양의 범신주의를 도입하여 생긴 것이 뉴에이지 운동이다. 자연주의나 범신주의의 신은 피조물 자체를 신격화한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다. 셋째로 현대의 많은 지성인들은 불가지론을 주장한다. 결국 알 수가 없다는 것



이다. 이들은 지성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말 할 수 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방법론적인 회의에 빠져있는 이들의 태도는 ‘모른다’로 일관한다.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어떠한 설명도 받아 드릴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사람들이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무에서 끌어 내시고 2백억 광년의 반경을 가진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주가 감당하지 못할 분으로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들지 못하고 손으로도 만져보지 못하는게 당연하다. 우리들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시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일이 특별계시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 이 특별계시는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이신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또 피조세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 이것은 일반계시다(롬 1: 20). 이 말씀대로 우주만상은 창조주의 솜씨를 드러낸다. 과학적인 조사나 증명이 진정 필요 없다. 어린아이도 가질 수 있는 보통 일반 상식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일반계시의 예를 몇 가지 들자면, 첫째로 어길 수 없는 자연법칙과 둘째로 생명체의 신묘막측한 설계와 정보 및 기능이다. 과학이 아직 풀지 못하는 자연법칙이 많이 있다. 중력의 법칙, 전자기장, 원자와 전자간의 강한 상호작용, 약한 상호작용 등이다. 우주만상이 법칙들을 어김없이 따른다. 우주적인 인과 법칙에 의하면 시작없는 결과는 없다. 법칙은 법칙을 만든자를 나

타내고 설계는 설계자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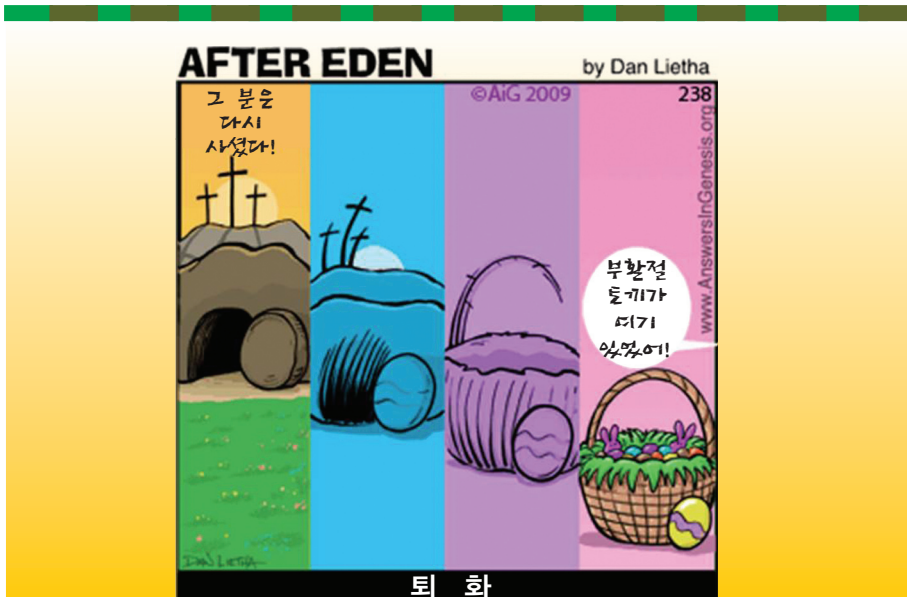
봄이 오면 이제 톨립이나 수선화의 새순이 얼어붙은 땅을 깨고 당당하게 올라 온다. 푸른 들판 위를 뛰어 다닐 토끼들이나 나무둥치를 바쁘게 오르락 내리락 할 다람쥐들이 눈에 선하다. 이러한 생명들이 햇빛과 수분이 있으면 그냥 발생한다는 얘기는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다.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 하나만 보더라도 복잡한 설계와 포함된 정보와 기능을 자연현상으로 도저히 설명 할 수가 없다. 환원불가능의 복잡성을 보일 뿐이다. 사람의 세포 내에 있는 핵산은 모두 32억 쌍의 특수 암호로 나열되어 있다. 이것을 모두 풀면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50번 왕복 할 수 있는 거리다. 이들 암호로 된 정보들이 자연 발생 할 수가 도저히 없다. 사람의 손가락은 일정한 길이 이상은 자라지 않는다. 자기의 새끼손가락이 귀 구멍보다 더 가늘어서 귀 안의 고막을 다쳤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더욱 신묘한 것은 삼 파운드 밖에 되지않는 사람의 뇌다. 우주의 천상계보다 더 복잡하고 정밀한 구조가 뇌라고 한다. 또한 마음(heart)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성, 감정, 의지, 양심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성과 절대적인 완전함, 선함 그리고 영원함 등을 사모하는 능력 등등, 이런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어디에서 왔을까? 생명은 생명을 주시는 자 없이는 있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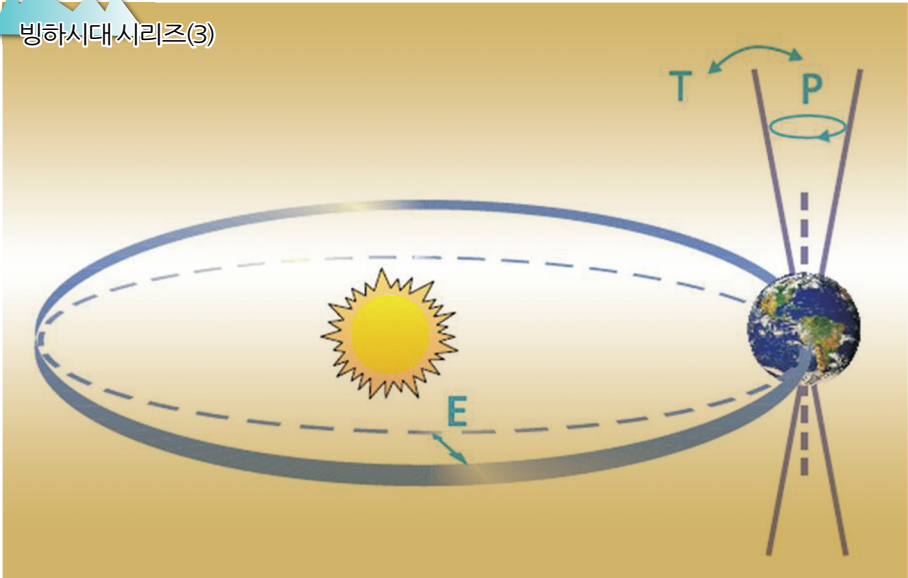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물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여 바로 보인다. 제자리에 놓였다는 뜻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왜곡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진화론은 사실을 엄청나게 왜곡한 이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 9: 9)



최인식 회장
의사





가장잘알려진빙하시대이론: **천문학적 이론**

빙하시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수백만 년 동안 어떻게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왔는가에 대한 이론 가운데 오늘날 가장 인기가 있는 이론을 꼽으라면 ‘천문학적 빙하기 이론(Astronomical Theory of the Ice Age)’이라고 할 것이다. 이 이론은 빙하시대를 설명하는 책뿐 아니라 영화에서도 자주 거론되므로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천문학자들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그 궤도가 원에서 타원으로 그리고 또 타원에서 원으로 약간씩 변화하며 순환되는 것을 발견해왔다 (그림). 그리고 이 주기가 100,000년일 것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자전축도 약간씩 변해왔는데, 22.1도에서 24.5도를 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반복했다고 믿는다. 이 자전축의 순환 주기는 약 40,000년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순환주기가 지구에 영향을 주어 빙하시대를 주기적으로 발생시켰다고 하는 것이 천문학적 빙하시대 이론이다.

천문학적 이론은 1800년대 말 James Croll에 의해 처음 주장됐다. 이 이론이 등장하자 과학자들이 여러 번의 빙하시대가 있을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오랜 지구나이에 대한 믿음을 증명한 것처럼 여기게 되며, 마지막 빙하기는 70,000년 전에 끝났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큰 이론상의 진전이 없다가, 1930년대 세르비아 기상학자인 Milutin Milankovitch의 자세한 연구를 통해 재등장하며 빙하시대가 약 18,000년 마다 최고조에 달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후에 Milankovitch가 자신의 이론을 교묘하게 조작하는 것이 발각되자마자 기상학자들로부터 호된 비평과 함께 1950년대에 버려졌다.

이 버려졌던 이론은 새로운 기술인 심해퇴적물 연구에 응용되면서 오랜 지구를 믿는 여러 과학자들의 끈질김으로 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심해퇴적물의 특징에 기초하여 대양지형은 간빙기 동안 완전히 해빙되었다가 다시 빙하기로 접어드는 30회 이상의 빙기와 간빙기가 규칙적으로 지난 250만년 동안 반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빙하시대의 미스터리가 풀렸다고까지 말했다.

많은 과학자들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주 치명적이다. 먼저, 이 이론에 의해 가정된 지구의 천문학적 변화에 의한 고위도의 여름 태양 빛의 차이는 빙하시대를 이끌기에는 너무 미약하다. 이 천문학적 주기 변화는 태양복사에 기껏해야 0.75%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는 기온을 변화시키기에는 아주 미미한 수치이다. 더군다나 고위도에서 기온의 영향은 태양 빛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북쪽으로 향하는 대기와 해류의 이동에 의존적이다. 이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론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 주된 영향을 거의 무시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점은 이 방법으로는 빙하시대 순환이 북반구와 남반구 모두에 동시에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반구에서 빛의 강도가 높으면 남반구는 상대적으로 낮게 되고, 또 남반구의 빛의 강도가 높으면 북반구는 낮게 되기 마련이다. 양쪽은 기후학적으로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 이론으로는 이들이 서로 빙기와 간빙기를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다.

실제로 오래 동안 많은 기상학자들은 이 이론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문제점은 빙하시대는 단지 춥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이 많이 내렸던 시기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추위에 대한 부분만 초점이 맞추어졌지 더 중요한 사실 즉, 눈을 내릴만한 수분의 공급에 대하여는 어떤 이론적 가능성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천문학적 이론뿐 아니라 모든 빙하시대 이론의 가장 치명적인 결점이 바로 이 문제이다. 대기 중으로 수분을 공급시켜주어야 할 따뜻한 대양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빙하시대를 설명하려는 학자들은 한결같이 차가운 대기에 초점이 맞추어 있으나, 따뜻한 대양은 설명하지 못한다. 천문학 이론도 동일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의 많은 책들은 여전히 천문학 이론으로 빙하시대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빙하시대 전문가인 창조과학자 Michael Oard는 아래와 같이 말한다.

“사람들은 천문학적 이론이 이토록 허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중화되었는지 의아해한다. 아마도 심해 퇴적물의 코어 값에 대한 통계가 결보기에 일치하는 것같이 보였던 것이 대부분의 과학자들을 동요시켰던 것 같다. 그러나 심해 퇴적물의 코어와 천문학적 이론과의 사이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실제로 연대측정 방법은 모두가 데이터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대부분은 ‘해석’으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해석이고 어디까지 사실인지를 분간하기 어렵다. 그것이 문제가 많은 허약한 이론일지라도 대중화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최근의 빙하시대에 대하여 어떤 설명이 필요한데 없는 것보다 낫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진화론적 동일과정론 과학자들은 오늘날의 과정들에 기초하여 빙하기에 관한 어떤 합리적 설명도 갖고 있지 못하다. 지금의 기후는 빙하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재만 부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ACT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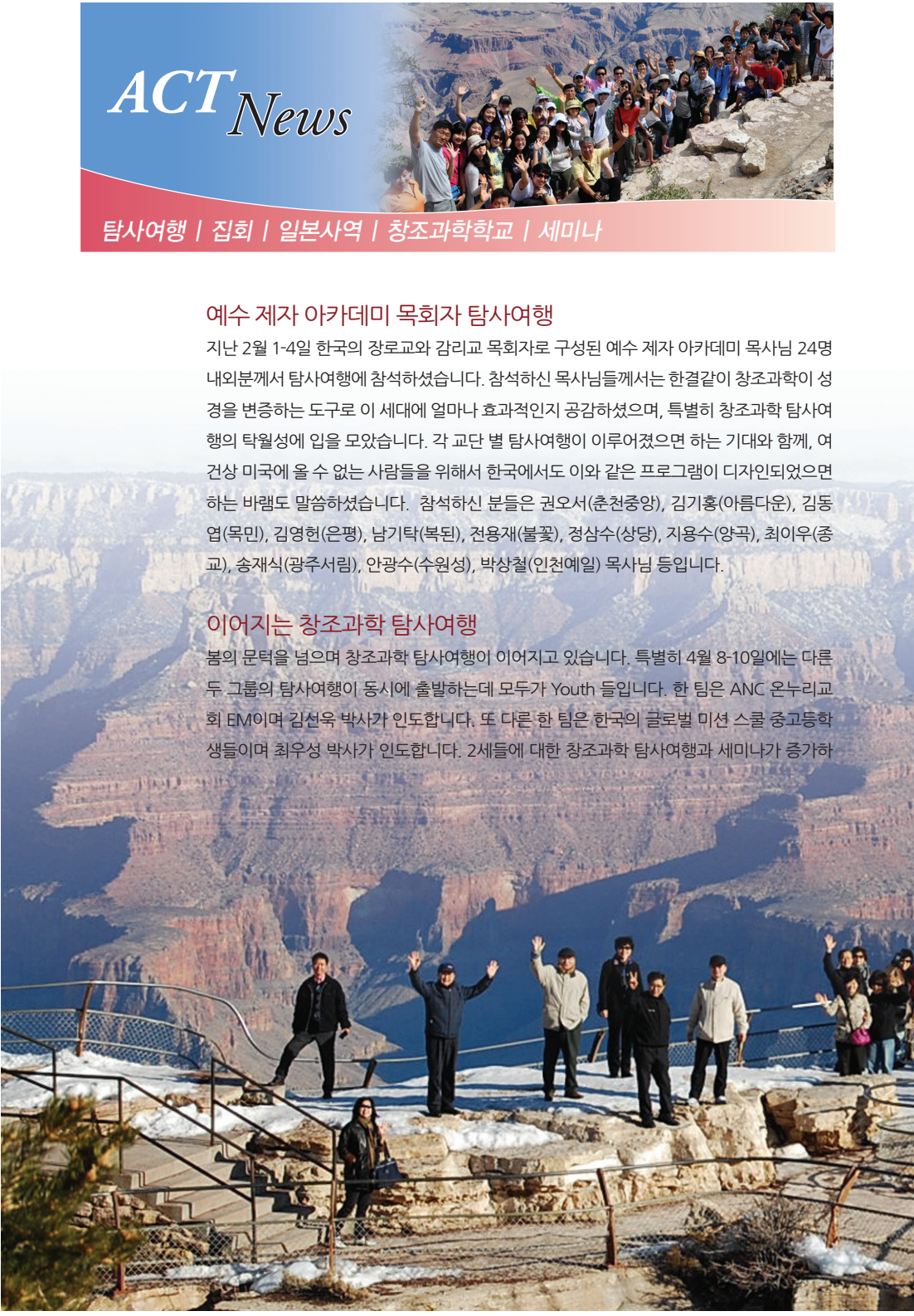
탐사여행 | 집회 | 일본사역 | 창조과학학교 | 세미나

예수 제자 아카데미 목회자 탐사여행

지난 2월 1-4일 한국의 장로교와 감리교 목회자로 구성된 예수 제자 아카데미 목사님 24명 내외분께서 탐사여행에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목사님들께서는 한결같이 창조과학이 성경을 변증하는 도구로 이 세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공감하였으며, 특별히 창조과학 탐사여행의 탁월성에 입을 모았습니다. 각 교단 별 탐사여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대와 함께, 여건상 미국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에서도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디자인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말씀하셨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권오서(춘천중앙), 김기홍(아름다운), 김동엽(목민), 김영현(은평), 남기탁(복된), 전용재(불꽃), 정삼수(상당), 지용수(양곡), 최이우(종교), 송재식(광주서림), 안광수(수원성), 박상철(인천예일) 목사님 등입니다.

이어지는 창조과학 탐사여행

봄의 문턱을 넘으며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4월 8-10일에는 다른 두 그룹의 탐사여행이 동시에 출발하는데 모두가 Youth 들입니다. 한 팀은 ANC 온누리교회 EIM이며 김선욱 박사가 인도합니다. 또 다른 한 팀은 한국의 글로벌 미션 스쿨 중고등학교생들이며 최우성 박사가 인도합니다. 2세들에 대한 창조과학 탐사여행과 세미나가 증가하



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더 많은 교회에서 2세를 탐사여행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5월부터는 거의 매주 탐사여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 교회 별로 출발 할 때도 있지만 개인적인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창조과학선교회에 문의 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도자의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차 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오는 6월 21-23일 2차 유학생 탐사여행이 출발합니다. ANC 온누리교회의 후원으로 참가비가 \$90입니다. 자격조건과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창조과학선교회에 문의하세요.

10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

오는 8월 2-4일 10차 유학생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출발합니다. 서울 온누리교회와 얼바인 온누리교회의 후원으로 참가비가 \$90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OMC “창조와 성령” 집회

이제만 부회장은 지난 2월 23-25일 3일간 열린 OMC(온누리 선교축제)의 초청강사로 창조과학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올해는 “창조와 성령”이란 주제로 온누리교회(서빙고)에서 열렸으며, 강사로는 하용조(온누리교회), 이동원(지구촌교회), 짐 심발라(Brookline Tabernacle Church) 목사, 김영길 한동대학교 총장, 이웅상 한국창조과학회 회장 등이었습니다. 이번 OMC는 약 2,500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였는데, 주제에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창조의 확신을 통해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제만 부회장은 주제 세미나로 “노아홍수 콘서트”, 선택 세미나로 “자구가 정말 수십억 년이 되었는가?”를 다루었습니다. 세미나는 CGNTV(cgntv.net)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Love Creation 팀과 일본 사역에 관한 회의

이재만 부회장은 OMC 하루 전인 2월 21일 일본의 Love Creation 팀과 일본 창조과학 사역에 대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OMC 참관 차 사사키 Love Creation 회장과 우사미 일본 창조과학회 회장 등 여섯 명의 일본인이 방한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오는 4월 5-8일 (4차, 동경), 7월 5-10일(5차, 고베, 오사카, 동경) Love Creation과 9월 19-25일 창조과학 탐사여행에 대한 구체적 일정에 대하여 계획했습니다. 특별히 오는 동경에서 개최되는 4월 Love Creation은 지금까지의 성공적 예를 들어 700 명이 넘게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과 우사미 회장도 감사로 초청되었으며, 총 9 회의 세미나 중 이재만 부회장이 6 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일본은 1877년부터 교과서에 진화론이 실림으로써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진화론 교육을 하게 된 나라입니다. 이때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 Love Creation팀들은 지난 세미나들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뿌리 박힌 '진화의 골리앗'을 넘어트리지 않고는 일본선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창조과학을 도구로 하여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미나

지난 2월 포틀랜드 그랜뷰 침례교회(최요셉 목사)와 수원하나교회(고성준 목사)에서 창조과학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창조과학학교

성경적인 세계관을 세우게 될 제 10기 중부 창조과학학교가 시카고 구세군교회(담임 장호운 사관)에서 4월 9일부터 6월 11일 까지 매 금요일 저녁에 열리게 됩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문의: 847-845-5368/630-400-6114, Email: tyi@sbcglobal.net

LA 새한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 16기 창조과학학교는 2월 27일 비가 오는 가운데 샌디에고의 창조과학 박물관 1일 탐사여행을 다녀 왔습니다. 칠레 대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경보로 해안 지층과 화석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상자모양의 버스 창으로 흘러내리는 빗물을 보며 노아방주를 느꼈고, 쓰나미 위험과 중간 중간 보여주신 무지개를 통해 노아홍수를 실감 있게 배운 기억에 남을 여행이었습니다.

ACT 인턴쉽 : 창조과학 사역자를 기다리며

최근 미국의 명성 있는 아메리카 리서치 그룹과 Answers in Genesis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보고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창조과학은 현대 교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과학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거짓 지식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는 유럽과 일본 교회를 통해 이미 보았고, 미국 교회들에서 지금 보고 있으며 한국 교회도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차세대의 창조과학 사역자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어 창조과학선교회는 창조과학을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전문적으로 사역할 인재 양성을 위해 단기 인턴쉽(ACT-IS)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2010년에 진행 될 인턴쉽 과정은 두 단계가 있습니다. 2010년 5월 20일부터 창조과학에 대해 배우는 3개월 과정의 기초 프로그램(ACT-IS-1)과, ACT-IS-1 이수 후 8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진행 될 사역자(강연, 탐사여행 인도자) 훈련을 받는 3개월 과정의 프로그램(ACT-IS-2)입니다.

ACT-IS 과정은 성경-과학-사역 세 부분의 균형 잡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성경 읽기, 창조과학 자료 공부, 탐사여행과 세미나 현장학습 등 사역 현장에서 직접 배우고 훈련하는 것으로 이루어 집니다. 헌신된 젊은이들과 이들을 후원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자로 혹은 후원자로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창조과학선교회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최우성 (mailforwschoi@gmail.com)



별을 정말 보셨나요?

“별을 정말 보셨나요?” 천문우주 분야 강의 중에 묻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하면 한쪽에서는 “예” 다른 편에서는 “아니오” 하며 서로 엇갈린 반응을 하게 된다. 그리고 잠시 후 “정직하게 말해 봅시다 무엇을 본 것이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질문에 답을 곧 알아차리고 “빛이요” 하고 답한다. 그렇다! 우리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빛들을 바라보면서 그 빛을 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빛 중에는 그 동안 지상에서 보낸 인공위성들이 반사하는 빛들도 있고,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과 각 행성을 돌고 있는 위성들, 또 화성과 목성 사이에 벨트로 존재하는 수백만 개의 소행성이나 운석들이 반사하는 빛들, 또 태양계를 돌고 있는 수많은 혜성들이 반사하는 빛들도 있다. 물론 빛 중에는 수없이 많은 별빛들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우리는 밤하늘에 수를 놓은 듯한 수많은 빛을 보면서 별들을 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은 해와 달,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 라고 하나님이 해와 달을 지으

신 사실과 그 목적을 말해 준다. 성경에는 어떤 긴 과정을 말하지 않는다. 시편 기자는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오랜 동안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우연히 형성된 것을 암시하지 않는다. 창조는 일 순간의 사건이었다.

별의 기원에 관해서는 창세기 1장 16절 하반절에 “...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간결한 표현을 하고 있다. 우주에 셀 수 없이 많은 별들 그리고 각각의 별들의 고유하고 특이한 경이로움과 그 광대하고 끝이 없는 우주에 대하여 긴 설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단 한 마디로만 말하고 있다. 또 성경은 오늘 날에서야 비로소 확인하게 된 과학적 사실을 “하늘의



성경(답)을 보지 않고 답을 알 수 있을까?

만상이 셀 수 없으며(렘33:22)” 라고 이미 기록하였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가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시19:1)고 그 의미와 목적까지도 말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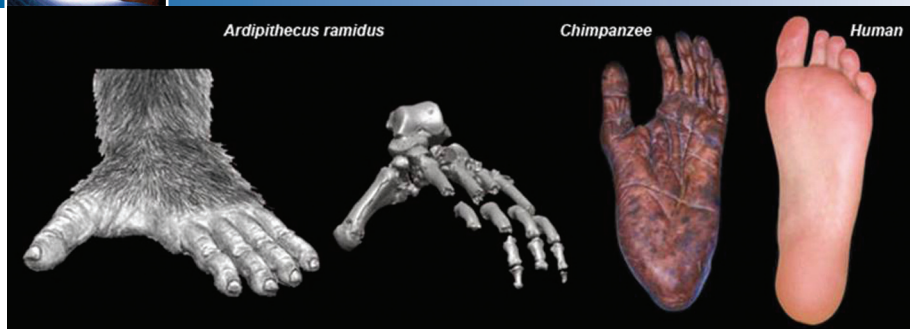
한편, 지금까지 별들에 대하여 검증된 사실들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달리 사람들의 주장은 수 많은 책으로 출판되어 설명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별들을 직접 탐사하지도 못하고, 직접 보지도 못하고, 오직 빛만을 관찰하고 각종 이론 체계를 세워 우주의 경이롭고 신비한 조화와 질서를 설명해 보려고 한다. 그들은 빛의 현상을 관찰하고 그 메카니즘과 기능을 통하여 기원에 대한 답과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이동용 박사
항공기계공학



세계관 전쟁 11



잡는 발과 걷는 발

사람:

꼬리없는원숭이에서 진화된 동물인가?(4)

원숭이

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증거를 화석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들 중의 하나가 신체 구조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발 뼈와 골반뼈는 사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며, 이미 열거 된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어떻게 유인원들을 만들었는지를 소개 한다.

발 뼈 사람 발은 아주 독특하여 꼬리없는원숭이의 발 모양이나 기능에 비교될 바가 아니다. 사람의 엄지 발가락은 발과 일렬로 되어 있고 꼬리없는원숭이처럼 옆으로 나와 있지 않다(그림). 사람 발가락 뼈들은 꼬리없는원숭이 발가락처럼 구부러져 붙잡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곧게 뻗어 있다.

걸을 때 사람 발은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몸무게의 분포가 뒤꿈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발 가장자리를 따라가다가 새끼 발가락 바닥에까지 이른다. 새끼발가락에서 시작해서 몸무게 분포는 다른 발가락을 거쳐 안쪽으로 퍼지고 마지막으로 엄지발가락에서 밀어 내게 된다. 어떤 꼬리없는원숭이도 사람처럼 그렇게 밀어 내는 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어떤 꼬리없는원숭이도 우리들의 독특한 걸음걸이인 성큼성큼 걸을 수 없고 사람의 발자국을 만들 수도 없다.

골반뼈(Hipbones) 골반은 걸을 때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데 전형적인 사람의 걸음걸이는 꼬리없는원숭이와 아주 다른 골반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만약 꼬리없는원숭이가 사람처럼 걸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지 골반만 조사하면 된다.

허리 띠 바로 아래에서 만져 질 수 있는 골반 부위(iliac blade)를 위에서 보면, 비행기의 조종간 핸들처럼 만곡되어 앞으로 나와 있다. 대조적으로 꼬리없는원숭이의 iliac blades는 스쿠터의 핸들 손잡이처럼 옆쪽 바깥으로 곧바로 돌출되어 있다. 꼬리없는원숭이같은 좌골로는 절대로 사람처럼 걸을 수 없다(그림). 이 특징 하나만으로 사람과 꼬리없는원숭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유인원을 만드는 유일한 세 가지 방법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인원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진화론자들이 유인원을 창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딱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1. 꼬리없는원숭이 화석 뼈와 사람 화석 뼈를 결합한 것을 새 생명체 즉 진짜 “유인원” 이라고 발표한다.
2. 화석화된 꼬리없는원숭이 뼈에서 사람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상상을 동원하여 꼬리없는원숭이를 더 사람 닮게 만든다.
3. 화석화된 사람 뼈에서 꼬리없는원숭이와 닮은 부분을 부각시키고 상상을 동원하여 사람을 더 꼬리없는원숭이 닮게 강등시킨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진화론자들이 꼬리없는원숭이와 인류 사이의 이을 수 없는 간격을 유인원 화석으로 메우려고 시도했던 모든 예들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만든 실제 예들은 다음 호에 소개 될 것이다.

저자: 데이빗 멘튼(David Menton)
출처: War of the Worldviews (2005), Answers in Genesis



7차 유학생 탐사여행(2)

1/4~1/6, 2010

창조를 알고 믿어온 저이지만 어떻게 설명을 할지를 몰랐는데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제
가 섬기고 있는 중. 고등부 학생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김병
구 전도사, Liberty Seminary, 새순장로교회

이번 탐사여행을 통하여 “진화론”이라는 것 뒤에 숨어 있는 사탄의 치밀한 계획을 바르
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 조경길 목사, Liberty Seminary, 린치버그 한인침례교회

많은 생각과 도전의 기회로 여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학생으로 대학생들을 섬
기는 위치에서 오는 수많은 질문과 어려움이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땅을
돌아보며 진화론에 익숙하게 길들여진 지체들에게 순간순간 허락하신 메시지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정리되어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감을 느낍니
다. - 박성일 목사, Liberty Seminary, 린치버그 한인침례교회

혼자 서부여행을 왔다면 그랜드캐년의 웅장함과 세도나의 신비로움과 라스베이거스의 화
려함에 감탄하며 돌아 갔을 텐데 창조과학선교회를 통해 이 보다 훨씬 아름다웠을 처음 창
조 때의 모습을 꿈꾸며 돌아옵니다. 순복음 라스베이거스교회 성도님들과 강일진 목사님의
기도와 재정후원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딱딱했던 한 신학생의 가
슴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더욱 새롭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 천강수 전도사, Liberty
Seminary, 워싱턴 나들목교회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진화론에 관한 것들뿐이어서 항상 갈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
다. 또한 창조의 입장에서 과학을 배운 적이 거의 없었기에 과학을 공부하고 과학자가 되
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적합한지 계속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 이 탐사여행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더욱 올바르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
다. - 강성민, Liberty University, 린치버그 한인침례교회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움을 느끼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그 분은 얼마나 더 멋진 분일까 하는 궁금증과 기대를 하게 된 뜻 깊은 여행이었습니다. ...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지막 때가 가까워 한 자녀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 최윤선, Purdue University, 퍼듀 한인장로교회

“아 정말 창조주, 나의 구원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 이새로미, BYU, 유타 반석장로교회

저에게 과학이나 성경은 항상 머리 아프고 이해가 안 되며 흥미가 없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성경이 과학적으로 쉽게 이해되고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과학과 성경이 친근하고 신뢰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 이주연, CSUSB, 미주 영안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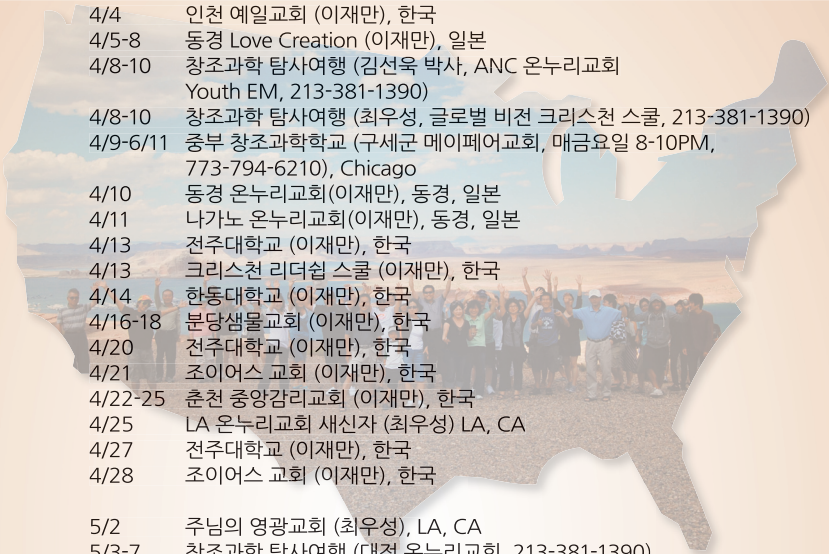
강의로 들던 것과는 또 다르게 보고 경험하는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얼마나 많은 도전에 직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성승훈, University of Illinois, 샴페인 어바나 한인 장로교회

모태신앙으로 살며 믿음에 있어서 감동이 무디어졌었는데 이번 탐사여행을 통해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김동민, University of Illinois, 샴페인 어바나 한인 장로교회

개인적으로 여러 번 왔었던 서부, 그랜드캐니언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니 정말 소름 끼치도록 실감이 났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그분이 디자인 하신 처음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 - 이여름, Michigan State Univ. 랜싱 새소망 침례교회

창조과학 탐사여행이라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분의 계획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며 동시에 섬세한 분이시며, 이 땅의 그 어느 것 하나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 이미래, University of Kansas, 로렌스 한인장로교회

2010년 ACT Schedule

- 
- 4/1 CNH Bible Study Group (Thomas Yi, 630-887-2390), Burr Ridge, IL
 - 4/4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LA, CA
 - 4/4 W. LA 온누리교회 새신자(최우성), LA, CA
 - 4/4 인천 예일교회 (이재만), 한국
 - 4/5-8 동경 Love Creation (이재만), 일본
 - 4/8-10 창조과학 탐사여행 (김선욱 박사, ANC 온누리교회 Youth EM, 213-381-1390)
 - 4/8-10 창조과학 탐사여행 (최우성, 글로벌 비전 크리스천 스쿨, 213-381-1390)
 - 4/9-6/11 중부 창조과학학교 (구세군 메이페어교회, 매금요일 8-10PM, 773-794-6210), Chicago
 - 4/10 동경 온누리교회(이재만), 동경, 일본
 - 4/11 나가노 온누리교회(이재만), 동경, 일본
 - 4/13 전주대학교 (이재만), 한국
 - 4/13 크리스천 리더쉽 스쿨 (이재만), 한국
 - 4/14 한동대학교 (이재만), 한국
 - 4/16-18 분당샘물교회 (이재만), 한국
 - 4/20 전주대학교 (이재만), 한국
 - 4/21 조이어스 교회 (이재만), 한국
 - 4/22-25 춘천 중앙감리교회 (이재만), 한국
 - 4/25 LA 온누리교회 새신자 (최우성) LA, CA
 - 4/27 전주대학교 (이재만), 한국
 - 4/28 조이어스 교회 (이재만), 한국

 - 5/2 주님의 영광교회 (최우성), LA, CA
 - 5/3-7 창조과학 탐사여행 (대전 온누리교회, 213-381-1390)
 - 5/12-14 창조과학 탐사여행 (WEEMA, 213-381-1390)
 - 5/17-19 창조과학 탐사여행 (글로벌 선교교회 실버회, 213-381-1390)
 - 5/21-23 창조과학 탐사여행 (홀러튼 장로교회, 213-381-1390)
 - 5/29-31 창조과학 탐사여행 (ANC 온누리교회, 213-446-2821)
 - 5/30 LA 온누리교회 새신자 (최우성), LA, CA

● 다른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시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CT



창조과학선교회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3010 Wilshire Blvd. PMB 578, Los Angeles, CA 90010
Office Address | 152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15
Tel. 213 381 1390 www.HisArk.com / hisark@gmail.com